

<http://dx.doi.org/10.17703/JCCT.2023.9.1.419>

JCCT 2023-1-50

## 古代 書畫論에서의 ‘逸’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Yi" in Ancient Calligraphy and Painting Theory

황혜핑\*, 등작인\*\*, 이재우\*\*\*

Huang Huiping\*, Deng Zhuoren\*\*, Lee Jaewoo\*\*\*

**요약** 이 연구는 역대의 문헌 기록에 근거한다. 제2장에서는 ‘일(逸)’의 개념 및 그의 변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했다. 그 다음으로 ‘일’의 고대 서화론에서 용필기법 측면과 필묵성정(筆墨性情) 측면, 두 가지 다른 개념으로 발전하였음을 고찰했다. 제3장은 ‘일’의 용필기법 측면에서 ‘일’은 서사(書寫)를 완성할 때의 속도, 서세(書勢), 필력 같은 기교를 말하는 형용사로 주로 사용됨을 확인하였다. 제4장은 ‘일’의 필묵성정 측면에서 ‘일’은 서화의 품격의 고하 대신에 작가, 화가의 인품 고하를 평가하는 용어로서 그들의 뛰어난 품성을 가리킴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고대 성현의 서예론 연구를 바탕으로 ‘일’의 핵심적인 정신을 탐색하면서 ‘일’로부터 파생된 서화론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주요어** : 서예론, 노장철학(老莊哲學), 용필기법, 필묵성정(筆墨性情)

**Abstract** The research object of this paper is "Yi" and "Yi" in ancient calligraphy theory, as an aesthetic category with oriental characteristics, from Laozhuang philosophy of pre-Qin Dynasty to literature field of literature. The second chapter describes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Yi", which has evolved into two concepts in ancient calligraphy and painting theory, namely, the concept of "Yi". In the third chapter, "Yi" is mainly used as an adjective to describe the speed, power and strength of writing, and in the fourth chapter, "Yi" is used to describe the writer's character. Based on the study of ancient sages' calligraphy,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e inner spirit of "Yi" and to systematically analyze and summarize the theory of calligraphy and painting.

**Key words** : Calligraphy Theory, Laozhuang Philosophy, Techniques with the Pen, Ink Temperament.

#### 1. 서론

‘일(逸)’은 중국 고대 서화론에서 매우 중요한 미적 범주이다. 일은 원래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문인이 은사의 정신적 경지와 생활 방식에 칭찬의 말로 쓰여졌으나 그 후에 서예비평 용어로 도입되었다.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보면, 학자들이 일의 범위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하였지만 서화론에서의 ‘일’의 구사 사례가 많고 복잡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일’의 염원 및 ‘일’의 수용을 살펴보고 서화론에서의 ‘일’ 본질과 핵심을 궁구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일’은 서화론에서의 문화적인 의미를 밝힐 것이다.

\*정회원, 경기대학교 글로벌과인아트학과 석사과정 (제1저자)

\*\*정회원, 경기대학교 글로벌과인아트학과 박사과정 (공동저자)

\*\*\*정회원, 경기대학교 글로벌과인아트학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12월 30일, 수정완료일: 2023년 1월 5일

게재확정일: 2023년 1월 9일

Received: December 30, 2022 / Revised: January 5, 2023

Accepted: January 9, 2023

\*\*\*Corresponding Author: 82960818@naver.com

Dept. of Global Fine Art, Kyonggi Univ, Korea

## II. '일(逸)'의 생성 및 서화에 끼친 영향

'일' 개념은 제자백가의 문장과 양한(兩漢) 시기 학자의 문집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는데 애초의 뜻은 인간의 정신적 경지와 생활 태도를 칭찬하는 말이었다. 선진양한(先秦兩漢) 시기만 해도 미적 범위가 아니었다. 도가사상은 '일'이라는 미적 사상의 원천으로 볼 수 있다. 풍우난(馮友蘭)은 그의 『중국철학간사(中國哲學簡史)』에서 '도가학자는 은거지에서 나타난다'고 하며 이 말은 도가사상과 은거자의 관계를 직접 밝혔다. 은사를 칭찬하는 것은 그들의 은일한 생활 태도를 흠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은 사실 은사의 정신세계에 대한 일종의 표현방식으로 간주할 수 있다.

도가사상의 핵심은 노장철학이다. 노자가 속세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수양을 높인다는 개인으로서의 정신적 자유를 강조하였다. 이런 이상적인 세상에 대해 노자가 '이웃 나라 서로 바라보고 닭과 개의 소리가 서로 들려서 백성들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게 된다'고 묘사하였다 [1]. 더 나아가 사회적 차원에서, '무위(無爲)를 주장한 노자가 '내가 억지로 힘이 없어도 백성들은 저절로 교화된다; 내가 고요함을 좋아해도 백성들은 저절로 바르게 된다; 내가 일을 만들지 않아도 백성들은 저절로 부유해진다; 내가 욕심이 없어도 백성들은 저절로 순박해진다'고 말한 바가 있다 [2]. 장자철학은 노장철학을 진일보 발전한 산물이다. 장자철학의 내핵은 그의 『소요유(逍遙遊)』와 『제물론(齊物論)』에서 여러 번 예기했던 것처럼 정신적 자유이다. 위에서 노자의 '일'은 '무위'에 있으며 안일자성(安逸自省)의 상태를 추구한다면, 장자의 '일'은 '유' 사상에서 엿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그가 『소요유』에서 '천지의 바른 기운을 타고, 여섯 가지 변화의 기운을 몰아 무궁한 곳에서 노닐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자연의 규칙을 파악하고 무궁무진한 우주를 노닌다는 경지이다. 또한 장자가 『장자 · 재유(莊子 · 在宥)』에서 '떠돌아다녀도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모르고 마음대로 다녀갈 곳도 알지 못하면서 바빠 노닐면서 거짓없는 세상을 볼 따름이다'고 했다. 이 말은 주광잠(朱光潛)의 『문예심리학(文藝心理學)』에서 미적 경함을 논하기를 '내가 단일한 의상에만 정신을 집중하고 그가 기타의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물어보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다. 욕심과 추구가 없이 사물의 본질을

탐색하는 것은 바로 '일'의 핵심적 이념이자 중국 도가 철학의 핵심적 이념이다.

철학적인 '일'을 처음으로 미학적 범위로 도입하는 사람은 동한(東漢) 시기 반고(班固)였다. 그가 『한서·예문지·시부약론(漢書·藝文志·詩賦略論)』에서 '춘추(春秋)시기 이후 주도(周道)가 무너지고 궁중가요는 열국에 있지 않고 시를 배운 자가 백성들 중에서 있으며 성현은 뜻을 잃은 문장을 쓰게 되었다.'고 논평했다 [3]. 이 문장을 통해 그 당시의 문인들이 이상적 사회를 이루지 못해서 산림에 은거하여 문장을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위진남북조(魏晉南北) 시기 '일'은 본격적으로 비평 용어로 사용된다. 그 시기 사회 불안으로 정치적 분규 속에 밀려들어 죽게 된 문인이 많았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아래 문인사상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고 그들이 유학적 경전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의미를 실현하는 것 대신에 도를 가볍게 논함으로써 인생의 미학적 의미를 추구했다. 문인묵객은 '일'의 생활태도를 가지고 문인묵객이 공명을 얻고자 라는 욕심을 버려 세속을 벗어나고 비리에 멀어지기를 바랐다. 그때의 문학가 유협(劉勰)이 쓴 『문심조룡(文心雕龍)』에서 '일'로 문학 작품을 논평하는 전례가 많다. 예를 들면, '경치가 순박하고 광택이 자연스러우면 죽히 국세를 회복하는 나라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교부(郊賦)』은 아름다워서 감상할 만하고 『선시(仙詩)』은 표표해서 경지가 높다.'고 하였다. 이처럼 예술창작에 있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향하고, 산수간에 노닌다는 이상은 향후 서화론에서 최고급인 '일품'의 초기 형태로 여길 수 있다.

선진양한(先秦兩漢) 시기와 위진남북조 등 시기를 걸쳐 '일'은 수당(隋唐)시기 서화 분야에서 미적 표준으로 탈바꿈하며 서화론에 정적으로 도입하였다. 이사진(李嗣眞)은 『서평후(書評後)』에서 '진나라때의 각명(刻銘)이 시원한 비단처럼 빛나고 종요(鐘繇), 장지(張芝), 왕희지, 왕현지의 작품은 일품같이 초탈하다.'고 하며 이 네 명 서예가의 속세를 벗어나는 경지를 극찬하였다 [4]. 또한 두맹(竇蒙)은 『술서부(述書賦)』에서 '능(能)에 대해서는 천중풍류(千種風流)가 '능'이라고 한다; '묘(妙)에 대해서는 백반자미(百般滋味)가 묘하고 한다; '정(精)에 대해서는 공업쌍극(功業雙極)이 '정'이라고 한다; '고(古)에 대해서는 제거상정(除去常情)이 '고'라고 한다; '일'에 대해서는 중임부방(縱任無方)이

‘일’이라고 한다; ‘고(高)’에 대해서는 초연출중(超然出衆)이 ‘고’라고 한다; ‘위(偉)’에 대해서는 정채조사(精彩照射)이 ‘위’라고 한다; ‘노(老)’에 대해서는 무심자달(無心自達)이 ‘노’라고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두맹은 일품의 특징이 ‘중임무방’임을 말하고 있다.

양원제(梁元帝) 소세성(蕭世誠)은 그의 화론집 『산수송석격(山水松石格)』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천지가 생령의 조화에서 이름을 얻는다. (서예가가) 공교로운 자세로 중형의 산수를 그린다. 혹은 격조가 높고 사상이 자유로워서 붓이 가는 대로 쓰고 묵법도 훌륭하다’ 라고 했다. 소세성은 이 문장을 통해 ‘격고사일(格高思逸)’이라는 서화에 대한 비평 표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당대 내지 그 이후의 서화비평 용어인 ‘일’의 위상을 확보했다. 이 논단은 사혁(謝赫)의 ‘화유일방(畫有逸方)’을 계승하는 동시에 후세의 ‘일품’에 대한 이론의 초석이 되었다.

당대 이론가 주경현(朱景玄)은 『당조명화록·서(唐朝名畫錄·序)』에서 ‘장회관(張懷瓘)의 『화품(畫品)』(일명 『화단(畫斷)』)은 신(神), 묘(妙), 능(能) 세 가지 품등을 정하였고 다시 상, 중, 하로 9 등급을 나누었는데 이 표준에 없고 상법에 따르지 않은 ‘일품’도 있고 그 우열을 드러내게 된다’고 말했다 [5]. 이는 주경현이 그 전의 서화의 품등론을 다시 종합하는 결과였다. 같은 책에서 일품으로 예시한 작품은 왕묵(王墨), 이령성(李靈省)과 장지화(張志和)의 작품이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서예가에 대해 주경현은 ‘이 세 사람이 회화의 법도를 지키지 않으므로 일품에 들어가게 한다. 역사상 전무해서 기록하였다’고 했다 [6]. 여기서 ‘일품’은 상법을 지키지 않고 ‘신품’, ‘묘품’과 ‘능품’을 능가하는 경지임을 알 수 있다. 송대 황휴복(黃休復)은 ‘일’을 사품등(四品等) 중에 첫 번째로 정해 놓았다는 점에서 그 당시 일의 위상은 최고급임을 엿볼 수 있는데 황휴복의 사품등설의 원문은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화격(畫格): 그림의 일격(逸格)은 이루어지기 가장 어렵다. 방원(方圓)의 법도에 맞으면 졸렬할 수 있고 정밀한 채색화만 능숙하면 하찮게 여길 수도 있다. 필법은 간소하고 형상은 갖추어진다면 자연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리하여 ‘일격’이라고 할 뿐이다.

(신격(神格): 회화예술이란 대개 사물의 형체를 본받아 완성한 것이다. 천기(天機)가 멀고 높으며 사(思)와

신(神)이 서로 어울린다. 창의에 체격이 있고 미묘가 교화에 부합한다. 상자를 열어보니 이미 달아났거나 벽을 뚫고 날아갔다는 것처럼 신격이라고 할 따름이다.

(묘격(妙格): 그림은 사람에 따라 나뉘는 본성이 있다. 필점목취는 그렇게 된 바를 알지 못한다. 마치 포정(庖丁)이 해우(解牛)할 때 칼을 쓰는 것과 같고 도끼로 영인(郢人)의 코끝 티끌을 베어내는 솜씨와 같다. 마음과 손이 일치하니 매우 미묘하므로 미격이라고 한다.

(능격(能格): 회화는 동식물의 천성을 담아 있고 천공(天工)에 비견할 수 있다. 험준한 산과 내가 융결함에 이르고, 물속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가 생생하게 그려지므로 능격이라고 한다.’

이렇듯 황휴복이 『익주명화록(益州名畫錄)』에서 능력, 묘격, 신격, 일격, 사품등론을 제시하였다. 능력, 묘격과 신격은 서예기법을 말하는 것이라면, 일격은 사실 이미 서예기법을 넘어서 중국철학적 최고의 범주인 ‘도법자연(道法自然)’에 이르렀다. 유견화(俞劍華)은 이 사품등론에 대해 ‘그림의 품등은 이로부터 정해지고 일품이 사품등의 제일이라는 것도 이때부터였다’고 했다. 여소송(余紹宋)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취했는데 그가 ‘서화의 품등은 사혁의 이론을 줄곧 답습해 왔는데 이 사단(四端)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사품등론은 전인의 서적에서 언급되지 않고 이 서문으로부터 비로소 정해진 논설이 되어 이후 이견이 더 이상 없다’고 했다 [7]. 일품의 개념과 더불어 황휴복이 일품의 구체적인 형태 및 일품으로 삼을 수 있는 화가를 언급했다. ‘손위(孫位)는 도월인(東越人)이다. 경성에서 희종황제가 있는 사천으로 갔다, 호는 회계산인(會稽山人)이다. 성격이 거칠고 흥금이 넓다. 술을 좋아하지만 만취한 적이 없었다. 승려와 도사와 자주 왕래했다. …… 광기(光啓) 연간 응천사(應天寺) 무지(無智) 선사의 초청을 받아 산석(山石)과 용수(龍水)를 소재로 하는 그림을 각자 두 폭을 그렸다. …… 소각사(昭覺寺) 휴몽(休夢) 법승의 초대받아 부구선생(浮漚先生) 송석묵죽(松石墨竹) 그림을 그렸으며 윤주(潤州) 고좌사(高座寺) 장승요(張僧繇) 전승(戰勝)을 모방해서 한 폭의 작품을 창작했다. …… 매와 개 같은 소재로 하는 동물화는 서너 덧 번의 붓질이면 그만 완성할 수 있다. 활, 도끼자루 같은 것들은 붓을 들어 자연스레 했는데도 먹물을 따라서 곧은 줄처럼 반듯하게 되었다. 그이 작품은 용을 거친 파도에서 잡아채듯 천태만상하고 기세가 생생하다; 송석묵

죽 그림에 있어서는 정교하고 용필이 오묘하며 웅장하므로 가히 묘사할 수가 없다. 하늘이 그에게 재주를 주 어지지 않는다면 고상한 정취와 일격이 어찌 이 정도였 을까?’ 라고 개탄했다.

여기 순위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서너 덧 번의 불질이면 완성할 수 있다(三五筆而成)’는 것은 ‘필간(筆簡)’으로 요약할 수 있고 ‘곧은 줄처럼 반듯하게 되었다(如從繩而正)’거나 ‘기세가 생생하다(勢欲飛動)’는 것은 바로 ‘형구(形具)’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황휴복이 필간형구(筆簡形具)을 일품 회화작품의 구체적 형태로 보고 이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화가가 순위밖에 없다고 말했다.

명대 동기창(董其昌)의 『화지(畫旨)』에서 ‘일품(逸品)’에 대해 해석한 바가 있다. ‘화가는 신품(神品)을 최고로 보고 신품 위에 일품이 더 있다. 자연에 나온 것이며 신품은 그 뒤에 있다는 것은 정해진 논설이다. 단 점을 감싸는 사람이 있을 리라 해서 사대부들이 웅당히 공교로움을 하고 조화를 스승, 벗으로 삼아야 한다. 왕유(王維), 왕희(王洽), 이성(李成), 미씨(米氏) 부자가 훌륭한 사람이다. 그들의 작품은 죽히 화가의 입을 열지 못하게 하고 지음끼리 감상할 만하다’ 라고 했다. 동기창은 황휴복의 사품등론의 내부적 순위를 인정하면서 ‘일’의 특징은 상법에 따르지 않음에 동의했다. 그러나 일품이 되려면 반드시 신품이라는 기반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황휴복의 이론을 발전하였음을 보여준다.

명대 서화론가 항목(項穆)은 『서법아언(書法雅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질(質)에 있어서 고하 지분이 있고 모두 묘하지 못하며 공(功)도 천심(淺深)의 분별이 있고 모두 미선(美善)을 갖추지 못한다. 사람마다 다른데 그들의 서예기법을 모두 다섯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정종(正宗), 둘째는 대가(大家), 셋째는 명가(名家), 넷째는 정원(正源), 다섯째는 방류(傍流)이다. 같이 나열해보면 그 우열을 알 수 있다.’ 여기 제시된 5가지 등급에서 정종이 최상급이다. 그렇다면 정종이 무엇인가? 항목은 ‘고금을 통하여 격노하지도 않고 맹렬하지도 않으며, 법칙을 드러나지 않도록 훈련하기에 골격과 모양이 맑고 조화된다. 자연스럽게 여러 서체를 구사하고 표일함을 드러내는 것은 회한데 이것은 대성(大成)으로 본다. 공부할 때는 묘함에 전념하고 지난 일을 계승하고 끊임없이 개척하는 것이니 ‘정종’은 제일이다’고 하기도 했다. 따라서

‘정종’은 ‘회고통금(會古通今)’을 하다가 ‘천연일출(天然逸出)’을 이루는 것이다. 이 문장을 통해서 ‘일’은 명대 서예론에서 최고 표준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대에 이르러 ‘일품’으로 여긴 작품이 많아서 서예가들에게 폐풍이 될 만큼 문인의 서예가 크게 쇠퇴하였다.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서술하지 않겠다.

명말(明末) 당지계(唐志契)는 그의 산수화론집 『회사미언(繪事微言)』에서 일품(逸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장을 작성했다. ‘산수의 미묘 중에서 창고하고 기이하게 가파른 것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쉽게 알 수 있으나 ‘일’자는 가장 난해하다. 대개 청이, 아일, 준일, 은일, 심일 등이 있다. 여러 가지 있지만 흐린 것, 속된 것이나 애매하고 비루한 것이 없으니 이것을 알면 각색 각양의 ‘일’을 모두 안다고 할 수 있다. ‘일’은 ‘기(奇)’에 가깝지만 사실 의도적으로 기이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한편, ‘운(韻)’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운을 넘어선다. 그 필묵의 감각스러운 멈춤, 그 흔치 않은 서세(書勢)는 지금 보는 이로 하여금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아 유연하게 감상케 한다. 이는 작가들이 늘 원하면 서도 얻을 수 없는 바이므로 말로 다 할 수 없다. 나와 원진(元鎮) 선생은 탄복할 따름이다.’ 당지계는 원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원화파(院畫派) 화가의 솜씨를 보잘것없다며 속품(俗品)만으로 간주했다. 그가 황휴복을 뒤이어 ‘일’을 청일(淸逸), 아일(雅逸), 준일(俊逸), 은일(隱逸), 심일(沈逸)으로 나누어 황휴복이나 후세 학자보다 ‘일’을 더욱 구체적, 체계적으로 분류해 놓았다.

상술한 논평을 제외하면, 다음과 같은 ‘일’에 대한 논설도 참고할 만하다. 예를 들면, 장회관(張懷瓘)은 왕현지의 서예를 평할 때 ‘자경의 서예가 초서체도 아니고 행서체도 아니다. 초서체로 변하는 경향이 있지만 행서의 자세로 펼치고 초서의 단서를 보인다. 따르는 법도 없고 어디에 얽매이지 않다; 눈에 띄게 출중하며 간략함이 특징이다; 감정과 정신이 방종하여 초일우유(超逸優游)하며 사정에 따라, 편한 대로 하는 것이다. 마치 바람과 비가 흩어지고 화사한 꽃이 피는 것과 같다. 이 필법과 자세는 가장 풍류스러운 것이다.’

이 문장은 필법, 묵법, 장법을 자세히 말하지 않고 왕현지의 서사 상태, 내지 인격 매력을 칭찬할 따름이다. 여기 초일(超逸), 신종(神縱)과 풍류 같은 용어는 상술한 장자철학과 관련 있으며 자유에 대한 해명으로 볼

수도 있다.

‘일’자는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달아나다’라고 해석된다. ‘일’은 노자철학에서 무위(無爲)로 수용한 후에 장자철학에서 ‘유(游)’ 사상으로 활용된다. 동한 반고(班固)가 이를 처음으로 미학 범주로 도입하는 것을 계기로 ‘일’은 서화비평 용어가 부상하기 시작했다.

### III. ‘일’의 용필기법 측면

‘일’은 종합적인 미적 범주로 취급하는 동시에 서화의 용필기법을 묘사하는 것도 주목된다. ‘일’은 서화론에서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용필기법과 필묵성정이 그것이다. ‘일’을 처음으로 서화의 용필에 쓰는 사람이 한대 최원(崔瑗)이었다. 그의 『초서세(草書勢)』에서 ‘혹은 어두컴컴하고 모습은 마치 꿰어진 구슬처럼 끊어지지만 떠나지 않는다. 노여움이 쌓이고 근심이 많다. 일을 석방시켜 기이함을 생기게 한다.’라고 한다. ‘혹은 어두컴컴하고 모습은 마치 꿰어진 구슬처럼 끊어지지만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초서의 외재적 형태를 묘사하는 문장인데 글자 간에 이어지지 않지만 기세가 끊어지지 않다. 물론 한 폭의 작품을 논평할 때 이 작품 안에서 서로 조화되고 불가분한 소재, 형식, 의미 세 가지 측면을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화론에서 처음에 용필만 말하다가 작가의 인격을 평가하는 것까지 승화하곤 한다. 여기의 ‘방일(放逸)’은 바로 이러한 예시로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작가의 용필 속도를 묘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작품의 품등을 정하기도 한다. 아래는 용필 속도에 대한 문장이 몇 편이 실려 있다.

장회관(張懷瓘)의 『서단(書斷)』에서 ‘왕소(王愷)가 한원제(漢元帝) 시기 사유(史游)가 『급취장(急就章)』을 쓰는 일이 있었고 예서체를 해체하고 동시에 쓴다고 했다. …… 이것은 문자의 골자만 살리고 예서체의 법도를 벗어나며 종임분일(縱任奔逸)하고 빠르게 완성한다. 초창(草創)의 뜻이 있기에 초서체로 명명하였다.’ 이 논평은 왕소가 사유의 『급취장』을 평가하는 내용이다. 그 당시 서사 시간의 제한을 받아 급하게 쓸 수밖에 없었으므로 예서체의 규칙에 따르지 않아 의외로 ‘초고(草藁)’를 형성하게 되었다. 여기 ‘종임분일’은 법도를 타파하는 서사의 자유로움을 의미한다.

이어서 우세남(虞世南)의 『서지술(書旨述)』을 살펴

볼 것이다. ‘사유가 급하게 일을 처리하게 위해 초고를 창안하지만 잘하지는 못한다. …… 백영(伯英)은 다시 번잡하는 곳을 삭제하고 섬예(鈔利)로 장식하고 분일(奮逸)을 더 하며 그 당시 초성(草聖)으로 모시고 출중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세남은 이 문장을 통해 급하게 초고를 창안한 사유의 바탕 위에 장지(張芝)가 그것을 발전하여 장지의 서세가 더욱 분방하고 힘도 굳건해진 다. ‘분열’ 이 두 글자에 용필 속도에 대한 평가를 내포하고 있다.

서예론에서 속도가 아닌 그 동태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 ‘세(勢)’로 표현하는 용법이 흔히 찾을 수 있다. 우세남의 『筆髓論(필수론)』에서 ‘혹은 체(體)가 웅장하고 억제할 수 없으며 혹은 세일(勢逸)하고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서예에서의 ‘세’는 선조로 강렬한 운동감을 보이는 장력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두맹(寶蒙)이 『술서부(述書賦)』에서 ‘문해(文海)가 빠르고 세일은 높다’는 말도 있다. 이는 세일의 자유분방한 동태미(動態美), 필법과 형태로 같이 이루어진 장력을 가리킨다.

청대 운격(惲格)의 『남전화발(南田畫跋)』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향산(香山)이 이르기를 천만의 나무에서 나무를 한 획이 없고 천만의 산에서 산을 한 획이 없으며 천만의 획에서 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유(有)가 무(無)이고 무가 유이니 ‘일’이라고 한다. 이 운격이 자신의 발문을 모은 『남전화발』에서 그의 큰아버지이자 회화 스승인 향산의 말로 ‘일’을 해석하고 있다. ‘천만의 획에서 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일품’의 용필이 그림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지를 밝히는 내용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방일생기(放逸生奇)’, ‘종임분일(縱任奔逸)’, ‘섬예로 장식하고 분일을 더 함(飾以鈔利, 加之奮逸)’, ‘세일기고(勢逸氣高)와 ‘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無一筆是筆)’는 것은 모두 서화 작품의 용필기법에 대한 평가이며 속도, 서세, 필력 등 여러 측면을 귀납한 것이다.

### IV. 실험 및 결과

서예론에서 ‘일’은 앞에서 제시했던 용필기법 측면의 의미 말고는 서화의 품등 대신에 작가의 인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동일시되어 활용되기도 한다.

당대 서예가 우세남(虞世南)의 『필수론·계묘(筆髓論·

契妙』에서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글자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뜻이 불화(不和)하면 글자도 뒤죽박죽이 될 것이다. …… 글자에 태도를 보인데 마음이 이를 보좌한다. 마음에서의 깨달음은 마음이 아니고 묘에 조화된다. 거울이 밝은 것은 구리를 주조한 장인의 마음이 밝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붓을 빌려 마음을 전하는 묘가 작은 묘가 아니나. 필시 마음에서 사고를 한 미묘한 끝에 정신과 생각이 투철하게 된다. 또한 고슬(鼓瑟)의 소리처럼 절묘한 소리는 뜻대로 생긴 것인데 관악기를 잡고 연주하여 이에 따라 일태(逸態)를 뽑낸다’라는 논평이 있다 [11]. 이 문장은 고대 서예론에서 작가의 성정과 작품의 관계, 즉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글자도 기울인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우세남은 이 문장을 통해 심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서술하고 서예 작품은 작가에게 마치 거울처럼 그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뜻에 따라 작품의 일부분이 되어 작품과 작가는 서로 일체로 볼 수 있다. 우세남과 비슷한 주장을 가진 장회근(張懷瓘)은 『서의(書議)』에서 왕현지의 서예를 평가한 바가 있었다. ‘자경의 서예가 초서체도 아니고 행서체도 아니다. 초서체로 변하는 경향이 있지만 행서의 자세로 펼쳐지고 초서의 단서를 보인다. 따르는 법도 없고 어디에 얽매이지 않는다; 눈에 띄게 출중하며 간략함이 특징이다; 감정과 정신이 방종하여 초일우유(超逸優游)하며 사정에 따라, 편한 대로 하는 것이다.’ 여기 초일우유는 사실 작가의 필묵성정 내지 인격에 대한 칭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예운림(倪雲林)은 다음과 같은 두 문장에서 ‘일’에 대해 논의하였다.

내가 말하는 그림은 일필(逸筆)로 대응하는 것인데 형사를 추구하지 않고 심심풀이를 하는 것이다. - - 『답장중조서(答張仲藻書)』; 내가 그저 대나무로 마음의 일기(逸氣)를 써낼 뿐이지, 같거나 같지 않다는 것을 따지지 않는다. 나뭇잎의 번성함과 성김, 가지의 비스듬함과 곧음을 비교할 수 있겠는가? 혹은 오랫동안 그렇지만 타인은 이것을 삼, 갈대로 여긴다면 내가 대나무라고 우길 수 없으니 보는 이를 설득시킬 수 없네! - - 『제자화묵죽(題自畫墨竹)』 여기 일필초초(逸筆草草)는 앞에서 동기창이 말한 상법을 지키지 않음을 의미하고 장자의 유(遊) 사상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이것은 가슴의 일기를 써내(寫胸中逸氣)기 위해서이다. 청대(清代) 강유위(康有爲)는 『광예주쌍죽·보남제구(廣藝舟雙楫·寶南第九)』에서 서예는 진나라 사람이 가장 잘한다.

아마도 자태가 산일(散逸)하고 언사가 미묘하고 풍류를 이루게 하니, 그 풍속이 그러한 것이다.’고 말했다. 강유위의 이 논평은 위진시기 사인(士人)이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상운(尙韻) 사상과 맞물려 있는데 산일은 바로 상운의 외적 표현이다. 이 말에서 작가의 필묵성정에 대한 찬양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대 서론가 주흥련(周興蓮)은 『임지관견(臨池管見)』에서 왕우군(王右軍), 우세남의 서체가 형일(馨逸)하고 거지안분(舉止安分)을 지킨다고 한다. ‘형일하다’, ‘거지안분’ 같은 단어는 왕희지와 우세남의 기법을 평가하는 것이 아님이 자명하다. ‘형(馨)은 왕왕 사람의 좋은 도덕을 포양하는 데 쓴다. 예컨대, 유우석(劉禹錫)의 『루실명(陋室銘)』에서 ‘유오덕형(惟吾德馨)’이라고 한다. 따라서 여기 ‘형일’은 작가의 덕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모든 예술이 다 자연의 조화와 내재적 정감을 반영하는 것인 만큼 서예는 하나의 중요한 예술 형식으로서 옛날부터 감정 전달에 사용되어 온다. 이에 글자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견자여견인(見書如見人)의 관념이 사람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흔하다. 본장에서 성현의 말을 빌려 ‘일’의 필묵성정 측면을 고찰했다. 사실 상술한 ‘일태(逸態)’, ‘초일(超逸)’, ‘산일(散逸)’과 ‘형일(馨逸)’ 이외 ‘일궤(逸軌)’, ‘일의(逸意)’, ‘종일(縱逸)’, ‘일기(逸氣)’와 ‘일운(逸韻)’ 같은 다양한 비평용어가 있는데 이는 작가의 필묵성정을 다각적으로 형용하기 위해서 발명된 용어들이다.

## V. 결 론

‘일(逸)’은 애초에 도가철학의 개념이었으나 중국 예술이론에서 민족적 특색을 지닌 미학 범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후에 다시 서화론에서 최고 경지인 ‘일품(逸品)’이 형성되었다. 결국 ‘일’은 서화비평 용어로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는 역사적 흐름에 따라 ‘일’의 의미 변천을 섬세하게 분석한다. 그리고 제 2장을 통해 ‘일’의 개념과 미적 성질이 점점 확립되는 과정을 짚어볼 수 있다. 아울러 제3 장, 제4장에서 ‘일’의 기능이 점점 커지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서사 기교를 말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작자의 인격 매력을 묘사하는 용어로 쓰기도 한다는 것을 살펴본다. 이런 의미에서 ‘일’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에 구애 받지 않고 사람

들의 일상생활의 나침반이 되어 사회 구석구석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References

- [1] Lao Tzu's Translation Notes, China Books, 2016, 197.
- [2] Laozi's Translation Notes, China Books, 2016, 142(4).
- [3] Chinese Books and Arts, Commercial Press, 1995, 49(4).
- [4] 'Qin Xiangming, Can Ruo Shu Jin, Zhong Xixian, ethereal and elegant.' Li Sizhen (Tang), The Back of Books, Selected Calligraphy Thesis, Shanghai Calligraphy and Painting Publishing House, 2014, 136쪽.
- [5] Feng Xiaolin, "Introduction to the Classical Painting Theory of All Ages", Northeast Normal University Press, 100쪽.
- [6] Yu Anyi, "Collection of Fine Arts and Classics of Chinese Past Years", Tianjin Ancient Books Publishing House, 1997, 298-299(4).
- [7] Yu Shao - Song, "Calligraphy and Painting Bibliography Problem Solving", Beijing Library Publishing House, 2003, 319.
- [8] Feng Xiaolin, 'Introduction to the Classical Painting Theory of All Ages', Northeast Normal University Press, 285.
- [9] Cui Yuan, "Cursive Power", Selected Calligraphy Thesis of Past Years, Shanghai Calligraphy and Painting Publishing House, 2007, 17(3).
- [10]Zhang Huaiguan, Pan Yunjiao, "Book Broken", Selected Calligraphy Thesis of Past Years, Hunan Fine Arts Publishing House, 2007, 180(3).
- [11]Yu Shinan, On the Essays of Pencils, Selected Calligraphy Theses of Past Years, Shanghai Calligraphy and Painting Publishing House, 1979, 113.

<p>※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 F-2022S1A5A8055242).</p>
---